

## 예능 PD, 예능 작가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스트레스 수준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류시내<sup>1\*</sup> · 구정완<sup>2</sup>

<sup>1</sup>모던필라테스 서울시청센터, <sup>2</sup>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The Effects of Entertainment Producer and Writer Job Stress Factors on Stress Level and Depression

Si-Nae Ryu<sup>1\*</sup> · Jung-Wan Koo<sup>2</sup>

<sup>1</sup>Seoulcityhall center, Modern Pilates International

<sup>2</sup>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on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on of entertainment program producers and entertainment program writer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nalysis of a survey collected by 65 respondents out of 224 questionnaires who are entertainment program PDs and entertainment program writer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 2017 to February 20, 2018.

**Results:**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level in the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a) higher total career, b) shorter working period in the current firm, c) longer weekly working hours and d) more count of weekend work, the results found higher stress levels. In the sub-factors of job stress, the stress level encountered by respon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ose with a) higher job demand, b) lower insufficient job control and c) higher job instability.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the depression level in entertainment PD was higher than the entertainment writer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sub-factors of job stress, the stress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ose with higher job demand, lower insufficient job control, and higher job instability. For job-related characteristic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longer weekly working hours.

**Conclusions:** Entertainment program producers and entertainment program writers suffer from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which are caused by excessive job demands, lack of job autonomy and job instabilities. Those factors must be managed and also their workweek should be shortened.

**Key words:** depression, entertainment program producers, entertainment program writers, job stress, psychosocial stress

### I. 서 론

보통의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노동자의 창의성과 상징적 가치를 기반으로, 소비자나 관객,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상품을 생산하여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산업분야를 문화산업분야라 한다(An,

2017a). 영국 미디어산업의 학자인 Hesmondhalgh & Baker(2011)는 문화 산업에 포함된 노동 또는 직업을 가리키며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 창의노동자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창의노동자들의 영역과 분야를 첫째 작가, 배우, 감독, 음악가와 같은 일차적 창의 집단, 둘째 촬영, 영상 편집, 음향 기

\*Corresponding author: Jung-Wan Koo, Tel: 02-2258-6268, E-mail: jwkoo@catholic.ac.kr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Received: March 6, 2019, Revised: March 21, 2019, Accepted: March 22, 2019

© Si-Nae Ryu <https://orcid.org/0000-0002-9141-182X>

© Jung-Wan Koo <http://orcid.org/0000-0001-8306-0292>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술자들 및 담당자들, 셋째 텔레비전 감독과 제작자, 잡지 편집자, 음반 기획자 및 감독자들, 넷째 행정 담당자, 다섯째 경영진, 여섯째 비 숙련 노동자들이라 분류 하였다(Kim, 2015).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능PD(producer)와 예능작가를 창의노동자로 이하 정리하였다.

창의 노동자는 문화산업 내에서 자신의 독창성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받아 인지도와 명성을 쌓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노동집단이다. 그러나 문화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면의 모습과는 달리 낮은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을 감수하고 있으며, 정당치 못한 급여 수준과 긴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및 조건 등을 견디며 커리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Choi & Lee, 2011; An, 2017b;). 또한 디지털장비를 사용하는 방송분야의 문화산업 노동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Han, 2015).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며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hang et al., 2005a). 과도한 업무의 양이나 동료와의 갈등, 조직 내에서의 갈등과 경쟁 등에서 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직무성과의 저하, 조직몰입의 저하, 이직률의 증가 등의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Hong, 2000).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따른 정신 신체적 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신심리적인 건강상태와 신체적 질환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한다(Yoon et al., 2006). 이렇듯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들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0). 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정 요양사에서는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과 같은 생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건강수준이 저하되고(Yoon, 2006), 정신과적 질환, 사회심리적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 건강문제로도 이어졌으며, 치위생사에서는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방안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Lee & Kim, 201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사무직에서 각 개인의

심리적 갈등상태로 우울과 심리적 불안 등의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Chai, 2016),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외에 직업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또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Cho, 2002). 즉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개인의 업무만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 내에서는 업무성과와 업무효율을 높이며 개인과 조직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ee, 2015).

창의노동자들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내에서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학 분야의 프로그램 생산체제에 대한 연구와 방송 막내작가 및 PD들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Shin & Kim, 2009; Han, 2015; An, 2017; Park, 2017)의 형태를 주로 이루거나, 방송작가 및 드라마 PD 또는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국의 제작·직무 환경에 관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양적 연구(Lee, 2000; Kim, 2001; Kim, 2017)만 진행되었다. 반면에 창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학적 측정도구를 이용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직업 군들에 비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창의노동자 중 예능 프로그램 PD 및 작가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스트레스수준과 우울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상암동과 여의도동, 등촌동, 목동 일대 방송국에 근무 중인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에서 현재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에 참여중인 예능 프로그램 PD, 예능프로그램 작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각각의 방송국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중인 14개의 팀, 총 224명에게 배부되어 65명이 응답하였고 회수된 답변에는 체크누락이 없었으며 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 전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결과 승인 (MC17QESE0111)을 받았다.

## 2. 연구 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기입 식으로 설문참여에 동의한 해준 이들에게 연구자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모바일을 통해 URL주소를 SMS(Short message service)로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설문답변의 체크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답변에 응답하여야 설문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직업, 성별, 혼인상태, 연령의 4개의 항목이며,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총 경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급, 주 근무시간, 주말근무횟수, 보수의 7개의 항목으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경력의 범주는 하나의 작품 연출을 맡게 되는 시기인 7년 단위로 나누었으며, 현 직장의 근무기간의 범주는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인 3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Lee, 2000; Shin & Kim, 2009).

### 2) 직무스트레스

장세진 등(Chang et al., 2005a)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단축형 24문항에 기본형의 물리환경 2문항을 추가한 선택형 26문항(Ryu et al., 2012)으로 8가지의 하부요인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구성되어 측정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 산출 방법에 따라 각 영역별로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3이었다.

###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PWI-SF&PHQ-2)

정신과적 문제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직장인 및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인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의 단축형 PWI-SF (Short Form)(Chang, 2000)의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항상 그렇다’(3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8점 이하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

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PHQ-2(Patient Health Questionnaire-2)는 Spitzer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Myung et al.(2000)에 의해 변안한 PHQ-2설문을 사용하였다. 일차진료영역 및 다른 일반건강문제를 다루는 환경에서 적은 문항수로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써 최근 2주 동안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증에 대해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다. PHQ-2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단답형과 점수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형PHQ-2를 사용하였다. ‘거의 매일’(3점)에서 ‘전혀 없다’(0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하 0점부터 최고 6점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4)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KWCS의 7문항(Q67, Q68, Q69, Q70, Q71, Q75, Q76)으로 건강에 관하여 정신건강, 신체건강 문항, 폭력 및 차별,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으로 선별하여 창의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Kim, 2015; Lee, 2014).

##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 하여 SPSS ver. 23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KWCS는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와 우울(PHQ-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III. 결 과

###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5명으로 예능 PD 40명, 예능 작가 25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11명, 여자 54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51명, 기혼이 14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
Job		
Entertainment PD	40	61.5
Entertainment writer	25	38.5
Sex		
Male	11	6.9
Female	54	83.1
Marital status		
Unmarried	51	78.5
Married	14	21.5
Age		
<30	32	49.2
30~39	30	46.2
≥40	3	4.6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32명,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0명, 40세 이상이 3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총 경력은 7년 미만이 33명, 7년 이상~14년 미만이 28명, 14년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4년 미만이 41명, 4년 이상~7년 미만이 15명, 7년 이상이 9명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30명, 계약직이 6명, 프리랜서가 29명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책임연출/책임작가가 6명, 연출/작가가 27명, 조연출/보조작가가 32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 9명, 40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이 19명, 6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16명, 80시간 이상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주말 근무 횟수는 4회 미만이 23명, 4회 이상~8회 미만이 28명, 8회 이상이 14명으로 나타났다. 보수에 있어서는 월 100~200만원 미만이 10명, 월 200~300만원 미만이 19명, 월 300~400만원 미만이 19명, 월 400만원 이상이 17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 2.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차이

### 1) 연구대상자와 한국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중앙값 비교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는 도구 개발자의 환산수식에 의거하여 영역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환산점수를 201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im & Park, 2012)에서 고지한 한국근로자 중

**Table 2.** Job related to a subject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istics	N	%
Total work period (year)		
1~<7	33	50.8
7~<14	28	43.1
≥14	4	6.1
Current work period (year)		
1~3	41	63.1
4~6	15	23.1
≥7	9	13.8
Working pattern		
Permanent worker	30	46.2
Contract worker	6	9.2
Freelance	29	44.6
Job position		
Chief PD/writer	6	9.2
PD/writer	27	41.5
Assistance PD/writer	32	49.3
Hours of duty (week)		
<40	9	13.8
40~<60	19	29.2
60~<80	16	24.6
≥80	21	32.3
Count of weekend work		
<4	23	35.4
4~<8	28	43.1
≥8	14	21.5
Monthly salary (million)		
100~<200	10	15.4
200~<300	19	29.2
300~<400	19	29.2
≥400	17	26.2

**Table 3.** Comparison of job stressor score (median) between entertainment program PDs and entertainment program writers

KOSS-subscales	Entertainment program PDs and writers median	Korean-worker median
Physical environment	65.50	44.50
Job demand	66.75	52.15
Insufficient job control	60.75	56.75
Interpersonal conflict	52.50	33.40
Job insecurity	60.75	50.10
Organizational system	59.50	52.40
Lack of reward	63.50	66.70
Occupational climate	55.50	41.70

양값과 환산점수를 비교한 결과, 창의노동자의 환산점수가 한국근로자 중앙값보다 보상부적절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 2) 일반적 특성에 의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수준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에서 건강군에 해당하는 분포는 없었으며,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15명(23.1%),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50명(76.9%)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스트레스군과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스트레스 수준 차이에서 결혼상태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able 4),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 차이에서 주말 근무횟수, 보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Table 4.** Social psychological stress level by a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y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	Stress		Total	P
	Potential group N(%)	High-risk group N(%)		
Job				
PD	10(25.0)	30(75.5)	40	.766
Writer	5(20.0)	20(80.0)	25	
Sex				
Male	2(18.2)	9(81.8)	11	.179
Female	13(24.1)	41(75.9)	54	
Marital status				
Un-married	8(15.7)	43(84.3)	51	.012
Married	7(50.0)	7(50.0)	14	
Age				
<30	3(9.4)	29(90.6)	32	.035
30~39	11(36.7)	19(63.3)	30	
≥40	1(33.3)	2(66.7)	3	

**Table 5.** Social psychological stress level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Stress		Total	P
	Potential group N(%)	High-risk group N(%)		
Total work period (year)				
1~<7	4(13.2)	29(86.8)	33	.129
7~<14	10(28.0)	18(72.0)	28	
≥14	1(25.0)	3(75.0)	4	
Current work period (year)				
1~3	6(14.6)	35(85.4)	41	.099
4~6	5(33.3)	10(66.7)	15	
≥7	4(44.4)	5(55.6)	9	
Working pattern				
Permanent worker	9(30.0)	21(70.0)	30	.276
Contract worker	2(33.3)	4(66.7)	6	
Free-lance	4(13.8)	25(86.2)	29	
Job position				
Chief PD/writer	3(50.0)	3(50.0)	6	.077
PD/writer	8(29.6)	19(70.4)	27	
Assistance PD/writer	4(12.5)	28(87.5)	32	
Hours of duty (week)				
<40	2(22.2)	7(77.8)	9	.086
40~<60	7(36.8)	12(63.2)	19	
60~<80	5(31.3)	11(68.8)	16	
≥80	1(4.8)	20(95.2)	21	
Count of weekend work				
<4	8(34.8)	15(65.2)	23	.049
4~<8	7(25.0)	21(75.0)	28	
≥8	0(0.0)	14(100.0)	14	
Monthly salary (million)				
100~<200	1(10.0)	9(90.0)	10	.042
200~<300	2(10.5)	17(89.5)	19	
300~<400	4(21.1)	15(78.9)	19	
≥400	8(47.1)	9(52.9)	17	

### 3.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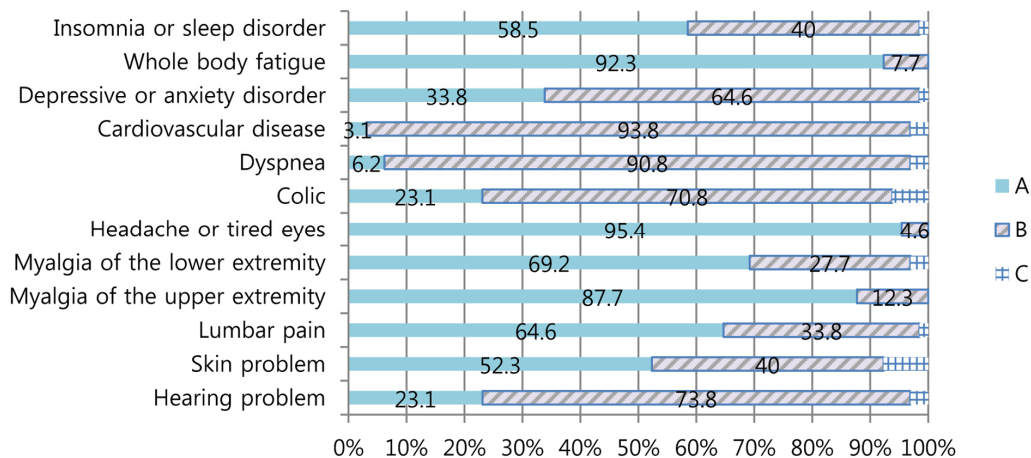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KWC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그렇다가 65명으로 100%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6명(9.2%), 보통이다는 24명(36.9%), 나쁜 편이다 35명(53.9%)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강상의 문제로는 피부문제 34명(52.3%), 요통42명(64.7%), 상지의 근육통(어깨, 목, 손목 등의 근육통) 57명(87.7%), 하지의 근육통(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의 근육통) 45명(69.2%), 두통·눈의 피로 62명(95.4%), 전신피로 60명(92.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38명(58.5%)으로 나타났다(Figure 1).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다 17명(26.2%)이며, 성적관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 4명(6.2%)으로 나타났다. 위협 및 굴욕을 당한 적 있다 17명(26.2%),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있다 2명(3.1%)으로 나타났다. 왕따나 따돌

림의 경험 있다 4명(6.2%)으로 나타났다. 60세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1명 (1.5%), 그렇지 않다 51명(78.5%), 일하고 싶지 않다 13명 (20.0%)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서는 만족한다 25명(38.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7명(56.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명(4.6%)으로 나타났다.

### 4.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와 우울(PHQ-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직무관련 특성에 따라 총 경력의 경우  $B=1.275$ ,  $OR=3.578$ 이므로, 총 경력이 1 증가할 때 고위험 스트레스군(1)일 확률



**Figure 1.** Entertainment program PDs and writers health status frequency analysis

A. It is related to health problems and work, B. No health problems, C. It is health problems but it's not about work

**Table 6.** Factors affecting PWI-SF o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Variables	B	SE	Wald	P	OR
(Constant)	-57.512	21.745	6.995	.008	.000
Total work period (year)	1.275	.541	5.553	.018	3.578
Current work period (year)	-.078	.032	5.829	.016	.925
Hours of duty (week)	.073	.031	5.500	.019	1.076
Count of weekend work	.729	.354	4.230	.040	2.072
Job demand	.406	.165	6.027	.014	1.501
Insufficient job control	.298	.130	5.254	.022	1.347
Job insecurity	.106	.048	4.828	.028	1.112

Adjusted for working pattern, job position, monthly salary, age, sex

Table 7. Factors affecting PHQ-2 o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Variables	B	SE	Wald	P	OR
(Constant)	-22.763	13.329	2.917	.088	.000
Job	3.105	1.523	4.160	.041	22.319
Hours of duty (week)	.045	.019	5.866	.015	1.046

Adjusted for working pattern, job position, monthly salary, age, sex

이 약 3.58배 높았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의 경우  $B=-.078$ ,  $OR=0.925$ 이므로, 근무기간이 1 증가할 때 잠재적 스트레스균일 확률이 1.08배 높았다. 주 근무시간의 경우  $B=.073$ ,  $OR=1.076$ 이므로, 근무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고위험 스트레스균(1)일 확률이 약 1.08배 높았다. 주말 근무 횟수의 경우  $B=.729$ ,  $OR=2.072$ 이므로, 주말 근무 횟수가 1단위 증가할 때 고위험 스트레스균(1)일 확률이 약 2.07배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 중 직무요구요인  $B=.406$ ,  $OR=1.501$ 이므로, 직무요구가 1단위 증가하면 고위험 스트레스균(1)일 확률이 1.5배 높았다. 직무자율성요인의 경우  $B=.298$ ,  $OR=1.347$ 이므로, 직무자율성요인 1단위 증가하면 고위험 스트레스균(1)일 확률이 약 1.35배 높았다. 직무불안정요인의 경우  $B=.106$ ,  $OR=1.07$ 이므로 직무불안정요인이 1단위 증가하면 고위험 스트레스균(1)일 확률이 1.07배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예능PD가  $B=3.105$ ,  $OR=22.319$ 이므로, 예능PD일 경우 우울이 예능작가보다 약 22.32배 높았다. 직무관련 특성에서 주 근무시간의 경우  $B=.045$ ,  $OR=1.046$ 이므로, 주 근무시간이 1단위 증가하면 우울이 증가할 확률이 약 1.05배 높았다.

#### IV. 고 찰

본 연구는 창의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을 파악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요인 대표치는 개발자의 영역별 환산 수식에 의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한국근로자 중앙값과 비교

결과 보상부적절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영역별 환산 점수 값은 높은 순위별로 직무요구영역, 물리환경영역, 보상부적절영역, 직무자율성 결여영역, 직무불안정영역, 조직체계영역, 직장문화영역, 관계갈등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단축형의 참고치 사분위수와 비교를 위해 물리환경영역을 제외하고 비교한 결과 직무요구영역, 관계갈등영역은 상위 25%에 해당하였고, 직장문화영역, 직무불안정영역은 남성 상위 50%, 여성 상위 25%에 해당하였다. 직무자율성영역, 조직체계영역, 보상부적절영역은 상위 50%에 해당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전 영역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능작가의 경우, 방송소재기획, 취재, 전문가 미팅, 구성안 작성, 출연자 섭외, 촬영 장소 섭외 관리, 촬영 콘티 작성, 편집시사회, 가편집 참여, 원고작성 등이며, 예능PD는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서 기획, 제작비 책정, 방송 시간대 조율, 출연진 인터뷰 및 출연 설득, 각 팀의 일정조율(카메라 팀, 분장 팀, 음향 팀, 출연진 등), 촬영, 편집, 편집시사 1-2회, 수정 편집, 프로그램 방송 등 프로그램이 최종 방영 될 때까지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을 진행 및 통솔하는 업무(Kim, 2017)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요구와 관계갈등에 대한 요인이 다른 요인들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Han, 2015).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타 직종과 비교하여 보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한국언론진흥재단(Oh, 2014)의 조사 결과와 종합병원 간호사(Woo & Kim, 2009)에 대한 연구에서 호소하는 주요 하부요인들이 연구대상자와 유사하였으나, 직무요구 영역은 연구대상자보다는 낮은 상위 50%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Jung et al.(2007), Lee & Nam(2015), Chae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호소하는 주요 스트레스요인들은 유사하였으나, 연구대상자의 직무요구영

역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낮은 상위 50%이하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촬영과 편집과정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작업으로 업무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며 움직임이 적은 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Han, 2015).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환경조사의 건강관련문항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요통, 상·하지의 통증, 두통·눈의 피로, 전신피로, 불면증·수면장애 등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의 차이는 있으나 Park(2015)의 연구에서 컴퓨터 작업자들의 주 호소되는 신체부위별 통증 자각 부위와 유사하였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의 VDT작업에서 오는 과도한 직무요구와 직무불안정, 직무긴장은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을 유발하고(Lee et al., 2007; Song & Lee, 2012),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건강(우울, 불안)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주요하게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Jung et al., 2008)고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연구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통증 부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대상자들 역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신건강(우울,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도 원인이 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관리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23.1%였으며, 고위험 스트레스군은 76.9%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타 직종과 비교하여 보면, 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64.9%,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24.8%이었으며(Cho et al., 2007),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73.2%,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25.1%이었고(Kim et al., 2005), Chang et al.(2005b)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잠재적 스트레스군 73%,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22%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의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관련특성과 관련하여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주 근무시간이 길며 주말 근무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서울 경기권, 중부권(강원, 충청지역), 남부권(영남권, 호남권)에 위치한 245개의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6,9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Chang et al.(2005b)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연차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요인이 감하였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총 경력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와 다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며, 매 주 방영 되어야 하는 제작물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 압박감과 프로그램의 완성도, 시청률과 시청자 평가 등에 대한 부분이 주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him & Kim 2009; Han, 2015).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직무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Koh et al. (2004), Kim et al.(2005), Chang et al.(2005b), Cho et al. (2007), Song & Gongyoo et al.(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과도한 직무요구, 직무자율성의 제한, 직무불안정의 요인들은 연구대상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의한 우울 정도에서는 예능작가보다 예능PD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 근무시간이 길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Lee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 중 일부가 간혹 이명, 심한 두통, 디스크로 인한 시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청각상실, 부정맥으로 인해 관련 질환 약을 복용 중에 있었다.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나 탈진, 극단적으로는 과로사로 진행될 위험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Chang et al., 2005b)와 H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3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과도한 업무량과 직무자율성의 제한과 작업에 대한 압박감등의

직업적인 스트레스요인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한 Chun.(2002)의 연구와 상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점수가 높을 수록 다른 하위 영역보다 우울 또는 불안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ng et al., 2017),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이 1개 이상 중복될수록 우울증상의 위험도는 2.4배부터 12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고위험 스트레스군일수록 우울증상에 대한 위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3). 이러하듯 직무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원인이 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의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스트레스수준과 우울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참여 인원이 65명으로 적었다는 제한 점이 있으며, 예능PD와 예능작가의 업무적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도 있다. 또한 창의노동자 중 일부인 프로그램제작과 기획을 하는 이들인 예능PD와 예능작가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창의노동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외에 보건학적인 평가 도구를 통한 피로누적, 심리적 압박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창의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요인 중 직무요구요인, 직무자율성요인, 직무불안정요인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며, 긴 근무시간과 주말 근무횟수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등 직무스트레스요인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무적 특성으로 보여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An CR. Creative labor. First edition Korean communication books; 2017a p. 25-42
- An CR. The Multiple Identities of Creative Laborers and the Level of Creative Autonomy: A Case Study of the Korean Entertainment Television PDs.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2017b;41:37-65
- Chae YM, Rhie JB, Lee 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Office Workers. J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389-99.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7.389>
- Chang SJ, Koh SB, Kang DK, Kim SA, Kang MG et al.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5a;17(4): 297-317
- Chang SJ.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tistics collection and measurement: stress prevention. Korean gyechukmunwhasa; 2000. P. 92-143
- Chang SJ, Koh SB, Kang MG, Cha BS, Park JG et al. Epidemiology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5b;38(1): 25-37
- Chai SK, Kim JL, Lee KJ, Park JB.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lawyers. Korean Bar Association 2016;458:6-26
- Cho JJ. Job stress and cardiovascular disease. J Korean Acad Fam Med 2002;23(7):841-54
- Cho KH, Lee DB, Cho YC. Psychosoci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7;19(1):26-37
- Cho YC, Kwon IS, Bae NK, Park JY. Effects on the Psychosocial Health Status of Job Stres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11(6):2169-77
- Choi HJ, Lee GH. Exploring the policies for television screenwriters' employment stabilization: Survey on screenwriters'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and labor contract. J Korean communication science 2011;11(2): 469-500
- Chun BY. Stress and cardiovascular disease. J Korean Epidemiology 2002;24(2):131-36
- Han CH. The Study on the Issue and Meaning of Intellectual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Cultural Industries in the Cross - Media er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2015
- Hesmondhalgh D, Baker S.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 Three Cultural Industries.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https://doi.org/10.4324/9780203855881>
- Hong SM. Strategic application scheme of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of Korea, Daejeon. 2000
- Hwang CK, Koh SB, Chang SJ, Park CY, Cha BS et al.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 Longitudinal Analysis from the NSDSOS Project.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7; 19(2):105-14
- Jung CH, Lim SW, Shin DW, Oh KS, Shin YC. Associations of overlapped job stress compon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 *J Korean Anxiety and Mood* 2013;13(1):32-8
- Jung KH, Kim YC, Kang DM, Kim JW.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 Psychiatric Disorders and Job Stress in Train Drivers. *J Korean Ergonomics Society* 2008;27(1):1-7
- Jung MH, Lee YM, Mikako A. Stress and Presenteeism in Work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7;19(1):47-55
- Kim DS, Park JS. Guidelines for measuring job stressors.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2;KOSHA GUIDE H-67-2012
- Kim ES. A Study on Production Producers 'Working Environments and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errestrial and Cable TV Produc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1
- Kim HC, Kwon KS, Koh DH, Leem JH, Park SG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5;18(1):25-34
- Kim KH.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in a Drama PD's Job Satisfaction: A Survey of Drama PD from Three Major Terrestrial TV Channels in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2017
- Kim YR. Digital Creative Labour - A Perspective of the Ethics of Labour and Subjectiv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J Korean Communication & Information* 2015; 69(1):71-110
- Kim YS, Kim EJ, Lim SW, Shin DW, Oh KS, et al. Association of self-reported job 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J Korean Anxiety and Mood* 2015;11(1):38-46
- Kim YS, Lee JH, Baik JW. 2014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Analysis. *J Korean of Applied Reliability* 2015;15(3):181-91
- Koh SB, Son MA, Kong JO, Lee CG, Chang SJ et al.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rker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4;16(1): 103-13
- Lee EC, Kim HC, Jung DY, Kim DH, Leem JH et al. Association between job-stress and VDT work,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of neck and shoulder among white-collar worker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7;19(3):187-95
- Lee HK, Nam CY. The effects of job stres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n job satisfaction of office worker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4): 489-97.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490>
- Lee JK. A Study on the Author Producing System for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0
- Lee JH, Kim JH.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and social psychological stress.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12(1):400-8. <https://dx.doi.org/10.5392/JKCA.2012.12.01.400>
- Lee KG, Suh CH, Kim JE, Park JO. The impact of long working hours on psychosocial stress response among white-collar workers. *Industrial Health* 2017;55(1): 46-53. <https://doi.org/10.2486/indhealth.2015-0173>
- Lee KL.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tress among teachers, government employees, journalists and researchers working for a large firm.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of Korea, Incheon. 2015
- Lee SY.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presenteeism of the workers in south Korea-focus on analysis of job class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usan. 2014
- Myung SK, Jeong B, Lee WJ, Koh HJ, Suh SY et al. Standardization of The two-question case-finding instrument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the adolescent's depression. *J Korean Acad Fam Med* 2000;21(1):100-6
- Oh SG. Results of a survey of journalists in 2013. Korea Press Foundation 2014;1(517):75-87
- Park JS.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Office Workers' Job Stress and VDT Syndrom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Seoul. 2015
- Park MJ. Work experience and survival strategies of assistant writers in Korean broadcasting companie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usan. 2017
- Ryu IS, Jeong DS, Kim IA, Roh JH, Won JU.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Psychosocial Well-being and Presenteeism, Absenteeism : Focusing on Railroad Worker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12;24(3): 263-73
- Song HS, Lee CG. The Differences the Relationship According to Body Part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Self-reported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as Seen in Surveys of Public Office Workers Using VDT.

-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12;24(1):20-32
- Song YH, Gongyoo JO, Kim IH, Choi WJ.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job stress and intensity of labor among security firm workers. J Korean Occup Environ Med 2008;20(4):283-94
- Shim HJ, Kim SE. PDs' Cognition on TV Program Production - A Case Study of the Entertainment PDs of MBC. J Kore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2009; 23(6):168-208
- Woo NH, Kim SY. Job Stres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of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09;18(2) 270-80
- Yoon SH, Bae JY, Lee SW, An KE, Kim SE.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Korean Men.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006;19(1):31-50
- Yoon YM.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ors and psychosocial well-being in Home health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6
- <저자정보>  
류시내(팀장), 구정완(교수)